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11 월의 선교편지

(시편 30:11)

“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교회들과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 드립니다.

얼마전 부터는 한동안 멈추었던 가정예배를 아침마다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드리는 찬송이 참 가슴에 사무치네요. 둘이서 조금은 썰렁하지만, 주님과 많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니 하루가 정말 꽉 찬것 같은 평안함이 옵니다.

페루의 날씨도 이상기온으로 1 년내내 비가 않오는 딱나에도 매일 밤마다 이슬비가 내려 사막산에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갑니다.





CBU 대학 캠퍼스사역

단기팀들이 섬겨주셔서 열린 대학교 캠퍼스 사역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모임을 갖고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대학교 안에 성경모임단체인 CBU(Comunion Biblica Universitaria) 라는 단체와 리더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학 캠퍼스 사역은 쉽지않습니다. 저희가 CBU 를 만났을때 현지인 젊은이들 역시 모임을 이끌어가는데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Mision Shammah 리더들과 함께 모임에 동참하고 연합하여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저희 사무실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라면을 끓여주면 학생들이 즉석에서 게임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토요일 오후는 다음날 주일 예배준비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이 또한 영혼구원을 위한 헌신이라 믿고 순종할때 할일을 했다라는 편안함이 있네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길은 티도 않나고 많은 세월이 흘러야 겨우 조금 뭔가 보일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헛된 고생을 하는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때면 마음이 힘들고 낙심도 됩니다. 우리도 편한 길을 가고 싶고 지금것 우리가 해오던 사역(어촌사역, 소년원사역, 노인사역)만 열심히 해도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땡볕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젊은이들에게

겸손히 웃으며 모임에 초대하는 것이 꾀가날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나 자신을 쳐 순종하기를 구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앞에 세워지기 까지 수십명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빚진자 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빚지고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선교사로 있음을 생각해봅니다.



어촌 Vila Vila 사역

빌라빌라 아이들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잘 않나오려고 했는데 맛있는 간식과 주님의 은혜로 요즘은 열심히 나오고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대학생 에디(Edy)가 매주 함께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니 더 활기가 넘치네요.

지난주에는 10 월 31 일 종교개혁의 날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빛(참진리)을 외쳤고 무엇을 개혁했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게임과 암송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 페루도 언제부터인가 할로윈을 즐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할로윈이 악한 풍습인지도 가르치고 대신 우리가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위해 마지막에는 많은 사탕과 초코렛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빌라빌라 주일예배가 1 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주 예배후 모여 따스한 티와 과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15 분 정도가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로하신분들인데 Mision Shammah 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년원 사역

소년원에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교장선생님에게 강팍한 마음이아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소년원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매주 주일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가르치는 성경공부를 통해 어르신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2026 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기온이라 변덕이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2026 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페루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 / 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1. Vila Vila 어촌에서 드려지는 주일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2. 소년원 주일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3. 대학기독교단체인 CBU 와 함께 캠퍼스사역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4. 한국어 교실이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5. 자녀들 (샬롬, 죠이스, 베키)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